

세계 에어쇼의 성장과정과 미래(1)



글 | 한봉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제전시부 과장)

항공역사와 같이 시작한 에어쇼

현재 전세계는 비행기술과 항공기의 성능을 선보이기 위해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형 행사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매일 개최되고 있다. 최초의 에어쇼가 개최된 해는 1909년이며, 라이트 형제가 동력비행에 성공한 것이 1903년이므로 항공기의 개발역사와 더불어 에어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에어쇼의 한 형태인 스피드 및 장거리 경주는 유럽 및 미주지역에서 일반인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에어쇼는 항공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주 형태의 에어쇼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곡예비행 및 항공기 전시를 주로하는 에어쇼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문 비즈니스를 위한 Trade Show도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Trade Show는 최신 기종 및 기술의 소개를 위한 실내 전시회, 야외 전시장, 세미나, 시범 비행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일반 대중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한 소비재 상품이 아닌 관계로 광고비의 비중이 큰 다른 여타 소비재 산업과는 달리 전시회 참가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높다. 대표적인 에어쇼인 파리에어쇼는 지난 2005년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A380 첫 비행을 한 바 있으며, 41개국 1,92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항공기도 약 238대가 전시된 바 있다.

항공을 레저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Oshkosh 에어쇼가 최대 규모일 것이다.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의 정보교환을 위해 밀워키에서 1953년 처음 개최되었다. 2005년 Oshkosh 공항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개인소유 1,267대, 군용기 386대 등을 포함하여 총 2,927대가 전시된 바 있으며, 참관객만 70여만 명에 이른다.

첫 에어쇼, 1909년 유럽에서 시작

베를린 에어쇼 운영본부에 따르면 지금의 베를린 에어쇼가 처음

개최된 때는 1909년 7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100일간으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에어쇼는 현재의 모습처럼 항공기, 우주기기 등의 위주가 아니라 비행선 위주였을 것이다. 첫 파리에어쇼가 개최된 것은 1909년 9월 25일이다. 파리에어쇼의 역사는 그 1년 전인 1908년 모터쇼의 부속행사로 개최된 항공기술전이 그 시발점이었다. 그 이후 1909년 9월 활주로가 아닌 프랑스의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Grand Palais 에서 주로 비행선, 엔진, 글라이더 그리고 항공기 등 약 380개 사가 참가한 가운데 파리 에어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13년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며, 1924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51년 현재의 파리에어쇼 개최장소인 Le Bourget 공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판보로 에어쇼는 1932년 SBAC(Society of British Aerospace Companies)의 주최로 지금의 판보로가 아닌 Hendon 공항에서 16개 업체에서 35대의 항공기를 선보임으로써 그 뒤를 이었으며, 1948년부터는 지금의 행사장소인 판보로 공항으로 옮기게 된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에어쇼가 지금처럼 각국의 업체가 참가하여 국제적인 Trade Show로 발전한 것은 1960년 파리 에어쇼와 ILA(독일) 부터다. 판보로 에어쇼도 1974년부터 국제적인 행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초창기 미국의 에어쇼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럽처럼 장비와 업체를 위주로 한 전시회라기보다는 항공기 성능 시범대회를 개최하였다. 1910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뉴욕 등 3개 도시에서 상금을 건 대회가 개최되었다. 1910년 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에서는 프랑스의 Louise Paulhan이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약 19,000달러의 상금을 타기도 하였다. 당시에 Paulhan은 4,164피트 상공까지 비행하였으며 1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177km의 속도로 약 1시간 50분간 비행을 하였다. 보스턴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상금만 약 9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 물론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스피드 경주대회는 미국보다 1년 빠른 1909년 프랑스 Reims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관객만 무려 50만 명에 이르러 당시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행사는 지리적 특성상 미국에서 더 활발히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까지 개최된 'The National Air Races'일 것이다. 1929년에 개최된 행사에서는 6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최소 25개 이상의 레이스를 펼치기도 하였으며 관중만 약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첫 파리에어쇼가 개최된 것은 1909년 9월 25일로 활주로가 아닌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Grand Palais에서 주로 비행선, 엔진, 글라이더 등이 전시됐다.

한다.

전세계 개최현황

유럽 이외에서의 Trade Show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66년 2개국이 참가한 Tokyo Aerospace Show가 개최되어 정기적으로 개최되다 80년대 초에 중단이 되었으며 90년대 초부터 다시 시작하여 4년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수 분야만 전시되며 현재는 공항이 아닌 실내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1980년부터 칠레의 FIDAE(1980), 싱가포르 에어쇼(1981)도 정기적인 에어쇼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말레이시아의 리마 에어쇼(1991)를 시작으로 호주에어쇼(1992), 러시아의 MAKS(1993), UAE의 두바이 에어쇼(1992), 중국의 쉘하이 에어쇼(1996), 인디아 에어쇼(1996) 등이다. 가장 최근에는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어쇼를 개최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도 첫 에어쇼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에어쇼를 개최한 바 있으나 97년 경제위기로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6년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지난해까지 5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쟁적으로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방위산업 시장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부문과 방산 부문을 결합한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어 방산분야의 참가비중이 높다. 이밖에 중국의 Aviation Expo(매 홀수년), 대만의 TATDE(매 홀수년) 등은 시범비행 및 장비 전시를 제외한 실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 헬리콥터 전문전시회인 Heliexpo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